연합뉴스

"남해로 오세요"...남해군 광역시티투어 버스 힘찬 출발

송고시간 | 2023-03-16 13:48

매주 주말, 서울·부산·대구·전주 광역 관광거점 지역 투어

남해 독일마을
[경남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해 84회 운행해 완판을 기록한 경남 남해군 광역시티투어 버스가 올해도 운행된다.

남해군은 지난 13일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3년째를 맞은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전주 등 광역 관광거점 지역에서 투어를 추진한다.

투어는 매주 주말 지역별 22회 진행된다.

부산·대구·전주(당일) 2만9천원, 서울(1박2일) 9만9천원으로 편리하게 남해를 여행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과 보리암을 중심으로 구성된 A코스와 독일마을 중심 B코스, 다랭이마을 중심 C코스가 번갈아 운영되며 축제 시즌에 맞춰 특화상품도 운용된다.

특히 올해에는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문화 이벤트 '꽃피는 남해'를 비롯해 바래길 고사리밭 걷기 여행, 독일마을 맥주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등 축제별·계절별 특화 여행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광역시티투어를 통해 수도권과 관광거점별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제별·계절별 특화 여행상품 개발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 예약 안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16 13:48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